

읽어내기 시리즈 · 문장편

고1·2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통합본 — 도구를 익히고, 지문에서 찾고, 문항으로 완결한다.

이론 · 적용점 · 실전을 학습 순서대로 한 권에.

1 이론편 — 문장편 본책

17개 도구를 하나씩. 단문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뜻을 나중엔.

2 적용점편 — 100지문 뼈대 드릴

기출 지문 전체를 문장별 뼈대로. 여러 도구가 어디에 걸리는지.

3 실전편 — 10지문 문항 풀이

지문에 문항까지. 구조로 정답을 가리키고 오답 근거까지.

01

P A R T 1 · 이론 편

도구를 하나씩 익힌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 CH01부터 CH17까지, -ing·-ed·to V·that의
네 얼굴·후치수식·부사절·병렬·삽입을 단문에서 손으로 표시한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을 위한 문장 독해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전국연합·모평 기출 문장으로 배우는 네 동작 — 나누고 · 지우고 · 잇고 · 채운다. 17챕터.



고1·고2 | 문장 독해 기본편

해석은 되는데 뭘 소린지 모르겠다는 학생을 위한, 문장을 자리로 여는 법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읽어내기 시리즈 · 문장편 I · 이론 | 고1·2 문장 독해 기본편

초판 1쇄 발행	2026년 8월 14일
지은이	정성봉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 전자우편	010-2782-0745 · code_of_english@naver.com
ISBN	979-11-220305-7-0 (5374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펴낸곳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 문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기출 원문입니다. 지문을 새로 쓰지 않았으며, 문장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표기한 정답률은 공개된 오답률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정답률 = 100 - 오답률). 소수점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생이 문장을 못 읽을 때 하는 말은 둘 중 하나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은 했는데 뭘 소린지 모르겠어요."

앞의 말은 **구조**가 안 잡힌 것이고, 뒤의 말은 **뜻**이 안 잡힌 것이다. 달라 보이지만 원인은 하나다. **뜻을 너무 일찍 넣어서다.**

단어를 보는 순간 뜻이 떠오른다. 그리고 뜻이 떠오르는 순간 그 단어의 **대표 품사**에 갇힌다. match를 보면 "경기"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match는 영원히 명사다. 동사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명사로 읽는다. 그래서 문장이 무너진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이 책은 순서를 뒤집는다. 뜻을 모르는 채로 **자리**부터 정한다. 자리를 정하고 나면 품사가 정해지고, 품사가 정해지면 뜻은 몇 개로 좁혀진다. 좁혀진 뒤에 넣는 뜻은 틀리지 않는다.

열일곱 장에 걸쳐 하는 일은 넷뿐이다. **나누고 · 지우고 · 잇고 ·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로 그린다. 읽고 나서 한 줄이 남아야 읽은 것이다.

수록 문장은 전부 **기출 원문**이다. 예시용으로 다듬은 문장은 한 개도 없다. 문장이 규칙에 안 맞으면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 문장을 버렸다. 교재에서 되던 것이 시험장에서 안 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책이 다루는 것

한 문장을 여는 법. 자리 · 수식어 · S와 V · 뜻 · 개념 한 줄.

이 책이 다루지 않는 것

문법 문제 풀이, 어휘 암기, 문항 유형별 스킬. 그건 이 책 다음이다.

첫 장의 첫 문장에서 match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로 시작한다. 마지막 장에서 같은 문장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왜 동사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네 동작, 그리고 한 줄

- 1 나눈다**
품사가 아니라 **자리**로. 동사처럼 보이는 것을 먼저 가른다 — be가 있나? to가 붙었나?
PART I · CH02~06
- 2 지운다**
명사에 붙은 것 · 문장에 붙은 것을 걷어낸다. 단, **지우면 안 되는 것 다섯**이 있다.
PART II · CH07~09
- 3 잇는다**
멀어진 S와 V를 붙인다. 삽입을 넘고, and가 묶은 둘을 확인한다. → **빠대**
PART III · CH10~12
- 4 채운다**
이제야 뜻을 넣는다. 자리가 정한 품사 → 문맥이 고른 뜻 → 지운 것 중 되살릴 것.
PART IV · CH13~15
- 5 그린다**
빠대를 스물다섯 자 안에 내 말로 다시 쓴다. 한 줄이 남아야 읽은 것이다.
PART V · CH16~17

각 장의 구성

BEFORE / AFTER	이 장을 읽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문제 · 원리	기출 문장 하나로 걸림돌을 보이고, 규칙을 세운다
훈련	기출 문장 3~5개. 답을 보기 전에 손으로 표시 한다
해설	붉은 면 . 걸림돌 → 오독 → 처방 → 복구의 4층으로 막힌 곳을 뚫는다
정리	개념 한 줄 + 동작 한 줄. 다음 장 예고

해설을 먼저 보지 마라. 이 책의 훈련은 "맞히기"가 아니라 **손으로 자리를 표시하기**다. 표시를 해 두고 해설과 **어긋난 자리**를 찾는 것이 이 책의 사용법이다. 어긋난 자리가 곧 당신이 문장을 놓치는 자리다.

목차

PART 0 · 왜 안 읽히는가 —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	1
CHAPTER 01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2
PART I · 자리 — 뜻 없이 읽는다 — 형태만 보고 자리를 정한다	10
CHAPTER 02 문장은 네 자리다	11
CHAPTER 03 -ing의 네 자리	19
CHAPTER 04 -ed의 세 자리	26
CHAPTER 05 to V의 세 자리	32
CHAPTER 06 that의 네 얼굴	38
PART II · 덜어냄 — 붙은 것을 지운다 — 단,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44
CHAPTER 07 명사에 붙은 것	45
CHAPTER 08 문장에 붙은 것	52
CHAPTER 09 지우면 안 되는 것	58
PART III · 이어붙임 — 떨어진 것을 잇는다 — S와 V, 삽입 너머, and가 묶은 둘	65
CHAPTER 10 S는 V를 기다린다	66
CHAPTER 11 삽입을 넘어라	73
CHAPTER 12 and는 무엇을 묶는가	79
PART IV · 뜻 — 이제야 뜻을 넣는다 — 자리가 좁혀 놓은 자리에	85
CHAPTER 13 자리가 뜻을 정한다	86
CHAPTER 14 문맥이 뜻을 고른다	92
CHAPTER 15 추상명사가 가리키는 것	98
PART V · 개념 — 한 줄로 그린다 — 읽고 나서 남는 것	104
CHAPTER 16 네 동작 연속	105
CHAPTER 17 문장에서 개념으로	111

* 모든 예시·훈련 문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기출 원문이며, 출처와 정답물을 함께 표기했다.

* 한 지문에서 최대 두 문장까지만 뽑았다(CH01 앵커 지문 제외).

왜 안 읽히는가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



이 파트는 진단이다. 단어를 다 아는데도 문장이 안 열리는 이유가 어휘가 아니라 **순서**에 있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인다.

CHAPTER 01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자리 → 뜻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BEFORE

단어를 보면 **뜻부터** 떠올렸다. 아는 단어인데 문장이 안 읽히면 어휘가 약해서라고 생각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멈췄다.

AFTER

단어를 보면 **앞뒤 한 칸**을 먼저 본다. 자리가 품사를 정하고, 품사가 뜻을 하나로 좁힌다. **뜻을 몰라도 자리는 잡히므로** 문장이 안 무너진다.

들어가기 이 문제를 풀어 보자

2011.11 고2 학평 24번 정답률 20% · 빈칸 완성 [3점]

Generally speaking, _____ is a great virtue in film music, both in duration and in choice of instrument. The musical score should do no more than is necessary to perform its proper function clearly and simply. However, because of some irresistible temptation to dress up scenes with music whether they need it or not, normal films usually end up with too much music rather than not enough. The Hollywood tendency seems to be toward large orchestras, even though smaller combinations can be more powerful in their effect on the film as a whole.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 ① freshness ② economy ③ morality
④ amusement ⑤ independence

결과 이 문제를 푼 고2 학생 100명 중 80명이 틀렸다. 정답은 ②다.

진단 먼저 확인할 것 — 이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가?

틀린 이유를 어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이 지문에 쓰인 단어들의 **실제 수준**을 보자.

단어	교육과정 수준	이 지문에서 하는 일
score	초등학교	두 번째 문장의 주어
match	초등학교	마지막 문장의 동사
economy	중학교	빈칸의 정답
function	중학교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
virtue	중학교	첫 문장의 보어

단어를 다 아는데 80%가 틀렸다. 심지어 **score**와 **match**는 초등학교 단어다. 그러면 왜 틀렸을까. 답은 간단하다 — **아는 뜻을 넣었기 때문이다.**

핵심 이 지문에는 학생을 배신하는 단어가 네 개 있다

네 단어 전부 네가 아는 단어인데, 전부 네가 아는 뜻이 아니다. 하나씩 확인한다.

단어	네가 아는 뜻	이 자리의 뜻
economy	경제	절약, 검약
score	점수, 득점	악보 (영화음악)
match	경기 / 성냥	맞다, 부합하다
function	기능하다	기능 (명사)

네 번의 배신

배신 ① economy — 빈칸의 정답

네가 아는 뜻: **경제**. 지문에 넣어 보자.

"일반적으로, **경제**는 영화음악에서 큰 미덕이다."

→ 말이 안 된다. 영화음악에 경제가 왜 나오나. 그래서 ②를 지운다. 그리고 틀린다.

사전을 끝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economy ① 경제, 경기 ② **절약, 검약**

"일반적으로, **절약**은 영화음악에서 큰 미덕이다."

→ 이제 말이 된다.

그리고 지문 전체가 이 말을 **다섯 번** 반복한다.

1 절약이 미덕이다 (빈칸)

- 2 악보는 필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 3 보통 영화는 음악을 **너무 많이** 쓴다
- 4 할리우드는 큰 오케스트라로 가지만 **작은 편성**이 더 힘이 세다
- 5 음악의 **적절한 양**이 영화에 맞아야 한다

지문 전체가 "적게 써라"라고 **다섯 번** 말했다. 그런데도 틀린 건, **economy**에 "경제"를 넣은 순간 그 다섯 번이 안 들렸기 때문이다.

배신 ㉠ score — 두 번째 문장의 주어

The musical **score** should do no more than is necessary...

네가 아는 뜻: **점수, 득점.**

"음악 **점수**는 필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 말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score의 **초등·중등 단어장**에는 "**악보**"라는 뜻이 **아예 없다.**

고등 단어장에 가야 세 번째 뜻으로 나온다. ㉠ 득점 ㉡ 점수, 성적 ㉢ **악보**

the musical score = 영화음악(악보). 뜻을 몰랐다고 자책할 일이 아니다. 네 단어장에 없었다.

그런데도 이 문장은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다음 쪽에서 설명한다.

배신 ㉠ match — 마지막 문장의 동사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네가 아는 뜻: 경기, 시험 / 성냥.

"음악의 적절한 양은 반드시 성냥..." → 여기서 문장이 멈춘다.

배신 ㉠ function —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

...to perform its proper **function** clearly and simply.

네가 아는 뜻: 기능하다 (동사).

"그것의 적절한 기능하다를 수행하기 위해" → 역시 멈춘다.

전환 자리는 뜻보다 먼저 있다

match로 돌아가자.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조동사 ?

match 앞에 **must**가 있다. **must**는 조동사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만 온다.** 예외가 없다. 이걸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match**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동사다.** 성냥(명사)도 경기(명사)도 아니다.

match의 동사 뜻은 하나뿐이다 — **어울리다, 맞다.**

→ "음악의 적절한 양은 반드시 영화 그 자체의 본질에 **맞아야** 한다."

네가 한 일은 **match**의 뜻을 떠올린 게 아니다. **must** 뒤라는 자리를 본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열린다.

The musical **score** should do... to perform its proper **function**

관사 형용사 ?

소유격 형용사 ?

관사와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붙는 장식이다. 장식이 붙었으면 뒤에 꾸밈을 받을 명사가 반드시 온다. → **score**도 **function**도 이 자리에서 명사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 내가 지금까지 한 방식

단어를 본다

→

뜻이 떠오른다

→

그 뜻의 품사에 갇힌다

→

구조가 들어진다

→

안 읽힌다

match → "성냥" → 명사로 굳음 → 동사 자리가 비어버림 → 멈춤

✓ 이 책이 가르치는 방식

자리를 본다

→

품사가 결정된다

→

그 품사의 뜻만 남는다

→

뜻이 하나로 좁혀진다

→

읽힌다

must 뒤 → 동사 자리 → "어울리다"뿐 → 선택지가 없음 → 통과

뜻이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뜻을 정한다.

단어 하나에 뜻이 다섯 개 있어도 상관없다. 자리를 먼저 잡으면 그중 하나만 남는다. match에 뜻이 세 개 있었지만 **must** 뒤라는 자리가 동사 하나만 남겼다.

확장 그래서 뜻을 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다

score의 "악보"라는 뜻을 몰라도, 그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명사 자리라는 걸 알면 **문장 구조는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으면 나머지 문장에서 뜻을 건져 올 수 있다.

자리를 알려주는 신호 — 지금은 셋만

이게 앞에 있으면	뒤는 이 자리	예
조동사 must, should, can, will, may...	동사	must match
관사·소유격 + 형용사 the, its, my	명사	the musical score
to +	동사원형	to perform

이 셋만으로도 이 지문의 배신 네 개 중 **셋**이 풀린다. PART I 전체가 이 신호들을 다룬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자리가 뜻을 정한다.

동작 한 줄

단어를 보면 뜻부터 떠올리지 말고, 앞뒤 한 칸을 먼저 보라.

- ✓ 어려운 문장의 내용어 **10개 중 7개는 중학교 어휘**다. 어휘가 문제가 아니다.
- ✓ 뜻을 먼저 넣으면 **대표 품사에 갇힌다**. 갇힌 품사로 짠 구조는 들어진다.
- ✓ 자리는 **형태만으로** 정해진다 — 조동사·관사·형용사·to. 뜻이 필요 없다.
- ✓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장은 안 무너진다**.

훈련 자리 먼저, 뜻은 나중 — 순서를 지켜라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자리를 먼저 판정하고, 그 다음에 뜻을 넣어라.

1

2018.03 고2 학평 31번 18%

A dictator like Zimbabwe's Robert Mugabe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to produce 100 trillion tons of rice.

order가 아는 뜻 : 순서 / 주문

자리 판정 : _____

이 자리의 뜻 : _____

2

2011.09 고2 학평 29번 29%

I **suspect** the Economist's marketing wizards were actually manipulating me.

suspect가 아는 뜻 : 용의자

자리 판정 : _____

이 자리의 뜻 : _____

3

2013.09 고2 학평 34번 23%

When experimenters intentionally copied the mannerisms of a **subject**, the subject reported to like the experimenter more.

subject가 아는 뜻 : ~의 지배를 받는(형용사) / 과목

자리 판정 : _____

이 자리의 뜻 : _____

4

2016.11 고1 학평 28번 20%

With technology progressing faster than ever before, there are **plenty** of devices that consumers can install in their homes to save more.

plenty가 아는 뜻 : 많이(부사)

자리 판정 : _____

이 자리의 뜻 : _____

다음 장 CH02에서는 자리를 네 개로 나눈다 — **S·V·O·C**. 이 네 자리만 찾으면 아무리 긴 문장도 뼈대가 보인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 4층

[1] **order** 2018.03 고2 학평 31번 · 정답률 18%

㉠ 걸림돌

order를 본 순간.

㉡ 오독

"독재자는 정부의 **순서**를 ..."에서 멈춘다. 또는 **order the government**를 "정부를 주문한다"로 읽고 넘어가려다 뒤의 **to produce**에서 막힌다.

㉢ 처방

order 바로 앞을 봐라. **could not**이 있다.

could는 조동사다. 조동사 뒤는 **동사**다. **not**은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끼는 부정어일 뿐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 **order**는 **동사**다.

㉣ 복구

order의 동사 뜻은 "명령하다".

A dictator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to produce...
S	V	O	(O가 할 일)
독재자는	명령할 수 없었다	정부에게	쌀을 생산하라고

[2] **suspect** 2011.09 고2 학평 29번 · 정답률 29%

㉠ 걸림돌

suspect를 본 순간.

㉡ 오독

"나는 **용의자**..." 하고 멈춘다. I 다음에 명사가 또 오면 문장이 안 된다. 여기서 막히면 뒤의 **were actually manipulating me**(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글쓴이의 판단**을 통째로 놓친다.

㉢ 처방

suspect 앞에 I가 있다. 주어 바로 뒤다. 주어 다음 자리는 **동사 자리**다. → **suspect**는 **동사**다.

㉣ 복구

suspect의 동사 뜻은 "~일 거라고 의심하다, 짐작하다".

I	suspect	(that) the Economist's marketing wizards were actually manipulating me
S	V	O
나는	짐작한다	Economist의 마케팅 귀재들이 실은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suspect 뒤에 절이 통째로 왔다. 명사였다면 뒤에 이런 절이 붙을 수 없다. 자리가 품사를 정하고, 품사가 뜻을 정했다.

[3] subject 2013.09 고2 학평 34번 · 정답률 23%

㉠ 걸림돌

a subject의 subject.

㉡ 오독

subject를 형용사 "~의 지배를 받는"으로 잡으면 **of a subject**가 무너진다. "과목"으로 잡으면 "과목의 버릇"이 되어 뜻이 안 통한다. 그대로 넘어가면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읽게 된다.

㉢ 처방

subject 앞에 **a**가 있다. **subject** 뒤에는 꾸밈을 받을 다른 명사가 없다. 관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a great virtue), 뒤에 명사가 없으면 그 자리의 **명사 핵심은 subject** 자신이다. → **subject**는 **명사**다.

㉣ 복구

실험(experimenters, experimenter) 맥락에서 subject의 명사 뜻은 "**피실험자**"다.

When experimenters copied the mannerisms of a subject,
 실험자가 따라 했을 때 피실험자의 버릇을

the subject reported to like the experimenter more
 S V
 피실험자는 말했다 실험자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같은 단어 **subject**가 한 문장에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명사다. 앞의 **a**, 뒤의 **the** — 둘 다 관사가 자리를 지정하고 있다.**[4] plenty** 2016.11 고1 학평 28번 · 정답률 20%

㉠ 걸림돌

there are plenty of devices.

㉡ 오독

plenty를 부사 "많이"로 잡으면 **there are 많이 of devices**가 되어 문장 형태가 안 잡힌다. 대개는 **plenty of**를 통째로 "많은"이라 외워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왜 of가 붙는지를** 모른 채 지나간다.

㉢ 처방

there are _____ — **there is/are** 뒤는 주어 자리다. 주어는 **명사**만 온다. → **plenty**는 **명사**다.

㉣ 복구

plenty의 명사 뜻은 "**많음, 풍부함**".

there are plenty of devices
 S(명사) ← of가 붙는 이유: 명사끼리 잇는 다리
 많음 장치들의
 = 장치들이 많이 있다

plenty of를 덩어리로 외운 게 아니라, **plenty**가 명사라서 **of**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리를 보면 문법이 설명된다.

자리

뜻 없이 읽는다 — 형태만 보고 자리를 정한다

뜻을 넣지 않고 **형태만** 본다. be가 있나, to가 붙었나,逗마가 있나 — 그것만으로 그 단어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정해진다. 여기서 **빠대를 세울 재료**가 나온다.

CHAPTER 02	문장은 네 자리다	S · V · O · C
CHAPTER 03	-ing의 네 자리	-ing
CHAPTER 04	-ed의 세 자리	-ed
CHAPTER 05	to V의 세 자리	to V
CHAPTER 06	that의 네 얼굴	that

문장은 네 자리다

BEFORE

긴 문장을 만나면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힘으로 읽었다.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안 남았다.

AFTER

S를 잡고 V를 찾는다. V가 무엇을 데려오는지 보면 문형이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덧붙임으로 보인다.

이어받기 앞장에서 이렇게 배웠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CH01에서 본 자리는 **단어 하나의 자리**였다. **must** 뒤는 동사 자리, **the ~ 형용사** 뒤는 명사 자리. 앞뒤 **한 칸만** 봤다.

이제 범위를 넓힌다. **문장 전체에는 자리가 몇 개 있는가.**

개념 자리는 넷이다

자리	이름	하는 일
S	주어	누가 / 무엇이
V	동사	어찌하다 / 어떠하다
O	목적어	무엇을
C	보어	무엇인지 / 어떤지

이 넷 말고는 전부 **덧붙임**이다. 아무리 긴 문장도 이 네 자리 위에 살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네 자리가 매번 다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자리가 나올지는 V가 정한다.**

V가 오른쪽을 예약한다

문장을 읽을 때 S는 대개 쉽게 잡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V를 찾는 순간, 뒤에 무엇이 올지가 정해진다.**

① V 혼자 끝난다 — S V

2022.03 고1 학평 41번

57%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er **reside** in our heads.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er **reside** [in our heads]

S _____ V L 덧붙임 J
조급함·비난·좌절·분노가 있다 우리 머릿속에

reside(있다)는 뒤에 뭘 데려오지 않는다. "있다"로 문장이 끝난다. **in our heads**는 자리가 아니라 덧붙임이다 — 지워도 문장이 선다.

reside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문장이 S V라는 건 안다. 뒤에 명사가 안 왔으니까.

reside는 고등 수준 단어다. 몰라도 된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건 뜻이 아니라 "뒤에 명사가 왔다"뿐이다.

② V가 "무엇을"을 데려온다 — S V O

2012.09 고2 학평 31번

53%

Every person **has** his or her own phobias or fears.

Every person **has** his or her own phobias or fears

S V O
누구나 가진다 자신만의 공포증이나 두려움을

has는 "무엇을"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 가지긴 가지는데 뭘? 그래서 O가 온다.

③ V가 "무엇인지"를 데려온다 — S V C

2013.06 고1 학평 42번

35%

But your wife's complaint **is** not a math problem.

your wife's complaint **is** not a math problem

S V C
아내의 불만은 이다 수학 문제가 (아니다)

O와 헷갈리기 쉬운데 구별법은 하나다.

O는 S와 다른 것, C는 S와 같은 것.

has phobias — 사람 ≠ 공포증 → O / **is a math problem** — 불만 = 수학 문제 → C

근거 이 셋이 전부다

고1·2 기출 문장 10,082개의 주절을 세어 봤다.

문형	문장 수	비율
SV	4,508	45%
SVO	2,655	26%
SVC	2,080	21%
S V O C	150	1.5%
S V O O	65	0.6%

세 개가 92%다.

문법책은 다섯 문형에 같은 지면을 준다.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그렇지 않다. **SV·SVO·SVC** 셋을 확실히 잡으면 열 문장 중 아홉이 열린다.

나머지 둘은 다음 쪽에서 따로 본다. 드물지만 나오면 잘 틀린다.

원리 그래서 읽는 순서가 정해진다

S를 잡는다

→

V를 찾는다

→

V가 예약한 자리를 오른쪽에서 받는다

V를 찾기 전에는 뒤를 예측할 수 없고, V를 찾은 뒤에는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어 나가는 방법이다. 되돌아갈 일이 없다.

CH01에서 **must match**의 **match**가 동사라는 걸 자리로 알아냈다. 동사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O가 올지 C가 올지도 알 수 있다.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match(맞다) → 무엇에 맞는지가 필요하다 → 뒤에 O가 온다 → the nature of the picture

확장 — 자리가 하나 더 붙을 때**SVOO** "누구에게" + "무엇을"

2014.06 고1 학평 44번

55%

A few moments later the Scouts **handed** the resident a pledge card.

the Scouts **handed** the resident a pledge card

S V O(누구에게) O(무엇을)

스카우트들이 건넸다 주민에게 서약 카드를

hand(건넨다), **give**, **tell**, **ask**, **teach** 같은 동사는 자리를 둘 요구한다. **handed the resident**까지 읽고 "주민을 건넸다"로 잘못 잡으면 뒤의 **a pledge card**에서 막힌다.

SVOC "무엇을" + "무엇으로"

2025.10 고2 학평 34번

46%

Noelle-Neumann **calls** this the spiral of silence.Noelle-Neumann **calls** **this** **the spiral of silence**

S V O C

Noelle-Neumann은 부른다 이것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Noelle-Neumann은 사람 이름이다.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다.** 모르는 이름은 그냥 명사고, 맨 앞 명사니까 S다. **자리는 이름을 알아야 정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도 명사가 둘 연달아 나온다. 그런데 이번엔 뒤의 것이 앞의 것을 설명한다.

this = the spiral of silence → O + C(S V O O였다면 **this**에게 **the spiral**을 준다는 뜻이 되어 말이 안 된다)**판정** 뒤의 둘이 같은 것인가

V 뒤의 두 덩어리	같은 것인가	판정
handed the resident / a pledge card	주민 ≠ 카드	OO
calls this / the spiral of silence	이것 = 침묵의 나선	OC

앞 쪽에서 배운 O와 C의 구별법이 그대로 한 칸 옮겨 온 것이다. 새로 외울 게 없다 — O는 다른 것, C는 같은 것.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V가 오른쪽을 예약한다.

동작 한 줄

S를 잡고 V를 찾아라. V가 무엇을 데려오는지 보면 문형이 끝난다.

자리 판정표

V 뒤에	자리	확인
아무것도 없다	SV	뒤는 전부 덧붙임
"무엇을"이 온다	SVO	S ≠ O
"무엇인지"가 온다	SVC	S = C
명사 둘, 서로 다르다	SVOO	앞=누구에게, 뒤=무엇을
명사 둘, 뒤가 앞을 설명	SVOC	O + C를 붙이면 작은 문장

훈련 S·V를 먼저 찾고, V가 데려온 것으로 판정하라

아래 다섯 문장에서 **S와 V**를 표시하고 문형을 적어라.

1

2018.09 고2 학평 31번

39%

Email, video, audio, and text messages can be saved.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2

2011.06 고2 학평 20번

60%

He made model cars, model railroad layouts, and model street scenes.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3

2011.03 고2 학평 37번

67%

Ben Schneider was the son of an anthropology professor and a sociology professor.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4

2012.11 고2 학평 45번

40%

But Jimmy taught me a lot more about nature.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5

2024.06 고1 학평 38번

47%

Growing crops forced people to stay in one place.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다음 장 CH03부터는 같은 형태가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본다. 첫 상대는 **-ing**다. 하나의 -ing가 세 자리를 오간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S V 2018.09 고2 학평 31번 · 정답률 39%

ⓐ 처방

V는 **can be saved. be + p.p.**는 한 덩어리로 V다. 쪼개지 마라. **saved** 뒤에 아무것도 없다 → **S V**

ⓑ 복구

Email, video, audio, and text messages **can be saved**
S _____ **V**
 이메일·동영상·음성·문자 메시지는 저장될 수 있다

주의 — 수동태를 보면 "목적어가 없으니 이상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다. 수동태는 원래 O였던 것이 S 자리로 올라간 것이라 O가 없는 게 정상이다.

[2] S V O 2011.06 고2 학평 20번 · 정답률 60%

ⓐ 오독

O가 셋처럼 보여 **model cars**에서 끊는다. 그러면 자리가 셋으로 늘어난다.

ⓑ 처방

and를 찾아라. **A, B, and C**는 통째로 한 자리다. 콤마 나열이 끝나는 곳의 **and** 뒤까지가 O 하나다.

ⓒ 복구

He **made** [**model cars, model railroad layouts, and model street scenes**]
S V O _____ 하나의 자리 _____

[3] S V C 2011.03 고2 학평 37번 · 정답률 67%

ⓐ 걸림돌

the son of an anthropology professor and a sociology professor가 길다.

ⓑ 오독

뒤가 길어서 **professor**를 C로 잡는다. 그러면 "**Ben = 교수**"가 되어 뜻이 뒤집힌다.

ⓒ 처방

of 앞에서 끊어라. **of ~**는 앞 명사에 붙는 덧붙임이다. C의 정체는 **the son** 하나다.

ⓓ 복구

Ben Schneider **was** **the son**
S V C
 [of an anthropology professor
 and a sociology professor]
 _____ 덧붙임 _____

[4] S V O O 2012.11 고2 학평 45번 · 정답률 40%

ⓐ 걸림돌

taught me 다음.

ⓑ 오독

taught me까지 읽고 "나를 가르쳤다"로 끝낸다. 그러면 **a lot more about nature**가 갈 곳이 없다.

ⓒ 처방

teach는 자리를 둘 요구하는 동사다. **me** 뒤를 계속 보라.

ⓓ 복구

Jimmy **taught** **me** **a lot more about nature**
S V O(누구에게) O(무엇을)
 Jimmy는 가르쳐줬다 나에게 자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5] S V O C 2024.06 고1 학평 38번 · 정답률 47%

㉠ 걸림돌

forced people to stay.

㉡ 오독

forced people에서 끊고 "사람들을 강요했다"로 읽는다. **to stay in one place**는 "머물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붙여 읽는다. → "머물기 위해 사람들을 강요했다"가 되어 무엇을 강요했는지가 사라진다.

㉢ 처방

force는 O 뒤에 C를 요구하는 동사다. **force / ask / tell / allow / encourage / advise** — 전부 O + to V 꼴이다. **to stay**는 목적이 아니라 C다.

㉣ 복구

Growing crops	forced	people	to stay in one place
S	V	O	C
농작물 재배는	만들었다	사람들이	한곳에 머무르도록

강요한 내용 = "머무는 것". O와 C를 붙여 읽으면 "사람들이 머문다"가 된다.

S V O C의 확인법 — O와 C를 붙여 읽어 작은 문장이 되면 맞다.

people ← stay ✓ this = the spiral of silence ✓

-ing의 네 자리

BEFORE

-ing를 보면 "~하는 것"이라 옮기고 넘어갔다. 그러다 문장에 동사가 둘이 되거나 주어가 둘이 되면 거기서 멈췄다.

AFTER

-ing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콤마와 be동사로** 먼저 판정한다. 자리를 알면 뜻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어받기 앞에서 여기까지 왔다

장

배운 것

CH01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CH02

V가 오른쪽을 예약한다

두 장 모두 다른 단어가 자리를 정해 줬다. **must** 뒤라서 동사, **the** 뒤라서 명사.

이번엔 반대다. **-ing**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같은 모양으로 네 자리를 오간다.

문제 같은 문두, 다른 자리

두 문장을 나란히 놓는다. 둘 다 -ing로 시작한다.

A

2012.03 고1 34번

56%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 is the best solution in hand.

B

2016.03 고2 28번

53%

Returning to college, I pursued medicine with a great passion.

A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 is the best solution
S _____ V C
일회용 의료품을 쓰는 것이 이다 최선의 해결책

B [Returning to college,] I pursued medicine
└─ 덧붙임 ─┘ S V O
대학에 돌아와서 나는 추구했다 의학을

A의 Using은 주어다. B의 Returning은 지워도 되는 덧붙임이다.

무엇이 같았나 — 콤마 하나

A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 is ... 콤마 없이 바로 동사가 온다 → Using이 그 동사의 주어

B Returning to college, I ... 콤마가 있고 뒤에 새 주어가 온다 → Returning은 덧붙임

뜻을 몰라도 판정이 선다. 콤마와 그 뒤에 오는 것만 보면 된다.

-ing의 네 자리

자리	이름	무엇으로 읽나	표지
V의 일부	진행형	~하고 있다	앞에 be동사
명사	동명사	~하는 것	S·O·C 자리 / 전치사 뒤
형용사	현재분사	~하는	명사에 딱 붙음
부사	분사구문	~하면서, ~해서	콤마로 떨어짐

① V의 일부 — 앞에 be가 있다

2022.06 고1 학평 30번

64%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S V ——— O

are가 앞에 있다. are living은 한 덩어리로 V다. 이걸 자리 문제가 아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 하나다. 앞에 be동사가 있으면 나머지 셋은 볼 필요가 없다.

㉠ 명사 자리 — 동명사

2021.03 고2 학평 42번

50%

Failing a test is **failing** a test, nothing more.

Failing a test is failing a test

S ————— V C

시험에 실패하는 것은 이다 시험에 실패하는 것

→ 한 문장에서 같은 -ing가 S와 C, 둘 다 명사 자리에 있다.

같은 말을 왜 두 번 쓰나. "시험 하나 망친 건 시험 하나 망친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뜻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 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다.

2025.09 고1 학평 38번

42%

Linear editing was **like composing** a paper on a typewriter.

like는 전치사다. 전치사 뒤는 명사 자리이므로 **composing**은 동명사다.

㉡ 형용사 자리 — 현재분사

2015.11 고1 학평 33번

51%

Refugees from **burning** cities were desperate to find safe refuge.

burning cities = 불타고 있는 도시들

↳ 명사에 딱 붙어 앞에서 꾸민다

burning과 **cities**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딱 붙었으면 꾸미는 것이다.

㉢ 부사 자리 — 분사구문

2012.03 고2 학평 35번

62%

Varenicline blocks nicotine receptors, **reducing** the urge to smoke.

Varenicline blocks nicotine receptors, [reducing the urge to smoke]

S V O ————— 덧붙임 —————

바레니클린은 차단한다 니코틴 수용기를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면서

콤마 바깥에 S-V가 따로 서 있으면 -ing는 부사다 — 앞이든 뒤든. 앞 문장 전체에 붙는 덧붙임이라 지워도 된다.

판정 위에서부터 하나씩

- | | |
|-------------------------|---------------------------------------|
| ① 앞에 be 동사가 있는가? | → 예: V의 일부 (진행형). 여기서 끝. |
| ② 콤마 로 떨어져 있는가? | → 예: 부사 (분사구문). 지워도 된다. |
| ③ 명사에 딱 붙어 있는가? | → 예: 형용사 (현재분사). |
| ④ 나머지 | → 명사 (동명사). S·O·C 자리이거나 전치사 뒤. |

네 단계 모두 형태만 본다. -ing가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주의 — ①을 건너뛰면 나머지가 다 틀어진다. **are living**을 보고 **living**부터 판정하려 들면 답이 안 나온다. **be**동사부터 확인하라.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ing는 ① **be** ② **콤마** ③ **뒤 명사** ④ **나머지** 순서로 자리가 정해진다.

동작 한 줄

-ing를 보면 ① 앞에 **be**가 있나(진행형) ② **콤마**로 떨어졌나(분사구문) ③ **명사에 딱 붙었나**(현재분사) ④ 나머지는 명사 자리로 차례로 확인하라.

보이는 것	자리	읽는 법
be + -ing	V의 일부	~하고 있다
, + -ing (새 주어 없음)	부사	~하면서, ~해서
-ing + 명사 (딱 붙음)	형용사	~하는
S·O·C 자리 / 전치사 뒤	명사	~하는 것

훈련 판정 순서 ①→④로 따져라

밑줄 친 **-ing**의 자리를 적어라.

1 2022.06 고1 학평 30번 64%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자리 : _____ 근거 : _____

2 2012.03 고1 학평 34번 56%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 is the best solution in hand.

자리 : _____ 근거 : _____

3 2015.11 고1 학평 33번 51%

Refugees from **burning** cities were desperate to find safe refuge.

자리 : _____ 근거 : _____

4 2016.03 고2 학평 28번 53%

Returning to college, I pursued medicine with a great passion.

자리 : _____ 근거 : _____

5 2025.09 고1 학평 38번 42%

Linear editing was like **composing** a paper on a typewriter.

자리 : _____ 근거 : _____

6 2020.06 고1 학평 34번 43%

You read the chapter once, perhaps **highlighting** as you go.

자리 : _____ 근거 : _____

다음 장 CH04는 **-ed**다. **-ing**가 넷이었다면 **-ed**는 셋인데, 그중 하나가 문장 전체를 무너뜨린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V의 일부 2022.06 고1 30번 · 64% — ㉠에서 끝난다

㉠ 처방 living 앞에 are가 있다. ㉠에서 판정 끝. V의 일부다.

㉡ 복구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 S V O.

[2] 명사(주어) 2012.03 고1 34번 · 56%

㉠ 처방 콤마 없다(㉡×). 앞에 be 없다(㉠×). Using ~ items 다음에 is가 바로 온다. 동사가 왔으면 그 앞은 주어 자리다. → 명사(동명사)

㉡ 복구

Using disposable medical items is the best solution in hand
S _____ V C

[3] 형용사 2015.11 고1 33번 · 51%

㉠ 처방 burning과 cities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 형용사(현재분사)

㉡ 복구

Refugees [from burning cities] were desperate to find safe refuge
S _____ 지워도 된다 V C

Refugees ~ cities가 통째로 S이고, 진짜 V는 그 뒤의 were다.

[4] 부사 2016.03 고2 28번 · 53% — 여기가 [2]와 같린다

㉠ 걸림돌 문두 -ing. [2]와 똑같이 생겼다.

㉡ 오독 [2]처럼 주어로 잡는다 → "대학에 돌아가는 것이 ..." 하고 뒤를 보면 I pursued가 나온다. 주어가 둘이 되어 문장이 안 선다.

㉢ 처방 콤마를 보라. Returning to college, 뒤에 새 주어 I가 온다. 새 주어가 따로 있으면 앞의 -ing는 주어가 아니다. → 부사(분사구문)

㉣ 복구

[Returning to college,] I pursued medicine with a great passion
_____ 지워도 된다 S V O

[2]와 [4]의 차이는 콤마 하나다. 뜻으로는 못 가른다.

-ed의 세 자리

BEFORE

명사 뒤의 **-ed**를 보면 "~했다"로 읽고 넘어갔다. 그러다 뒤에서 동사가 또 나오면 문장이 무너졌고, 왜 무너졌는지 몰랐다.

AFTER

-ed 앞에 be도 have도 없으면 **판단을 미루고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앞의 **-ed**가 수식이다.

이어받기 -ing보다 위험하다

CH03에서 **-ing**는 네 자리를 오갔다. 그래도 판정이 쉬웠다. **-ing**는 혼자서 절대 동사가 못 되기 때문이다. 앞에 be가 있어야만 동사였다.

-ed는 다르다. 혼자서도 동사가 된다.

He **worked** hard.

→ **worked**가 본동사 (과거시제)

The experiment **conducted** by Tanya ...

→ **conducted**는 동사가 아니다 (수식)

둘의 생김새가 완전히 같다. 규칙동사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문제 이 문장이 무너지는 지점

2013.09 고2 학평 34번

정답률 23%

The experiment **conducted** by Tanya Chartrand and her colleague **showed** that mimicry facilitated the smoothness of interactions and increased liking between interaction partners.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The experiment conducted ... → "그 실험은 수행했다"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읽는다. **by Tanya Chartrand and her colleague** — "Tanya와 동료에 의해". 어? 실험이 수행했는데 왜 "~에 의해"가 오지? 넘어간다. 그러다 **showed**를 만난다.

동사가 또 나왔다. 여기서 문장이 무너진다.

실제 구조 **conducted**는 앞 명사를 꾸미고 있었다

The experiment [conducted by Tanya Chartrand and her colleague]

S ————— 수식 (어떤 실험?) —————

그 실험은 Tanya와 동료가 수행한

showed **that ...**

V O

보여줬다 ~라고

conducted는 앞의 명사 **experiment**를 꾸미는 말이었다. 본동사는 7칸 뒤의 **showed**다.

-ed의 세 자리

자리	이름	표지
V의 일부	수동 / 완료 / 과거	앞에 be · 앞에 have · 혼자(과거시제)
형용사	과거분사	명사에 붙음 (앞이든 뒤든)
부사	분사구문	콤마로 떨어짐

㉠ 앞에 be가 있다 — 수동

2019.03 고1 학평 42번

37%

The groups **were kept** apart for about a week.

were kept는 한 덩어리로 V다. "~되었다"로 읽는다.

㉡ 앞에 have가 있다 — 완료

2011.06 고2 학평 32번

39%

Now, the new evidence **has challenged** this theory.

has challenged도 한 덩어리로 V다.

㉢ 명사에 붙는다 — 형용사

명사 앞

2014.06 고1 30번

24%

The newcomers to this land brought their **long-held** fears of the wolf with them.

명사 뒤

2018.06 고1 42번

32%

One who did was a young man **named** Clarence Birdseye.

a young man [named Clarence Birdseye]

↳ 어떤 젊은이? Clarence Birdseye라는 이름의

명사 앞은 헛갈리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명사 뒤다.

㉣ 콤마로 떨어진다 — 부사

2017.11 고2 학평 36번

67%

Eighty percent was informal, **organized** by the learner.

판정 -ed를 만났을 때 볼 것은 딱 셋

- ① 앞에 **be**가 있는가? → 예: **V (수동)**. 끝.
 ② 앞에 **have**가 있는가? → 예: **V (완료)**. 끝.
 ③ 둘 다 없다 → ★ **오른쪽을 계속 보라** ★

③이 이 장의 전부다

-ed 앞에 be도 have도 없으면, 그건 **본동사(과거시제)**일 수도 있고 **수식**일 수도 있다. 생김새로는 못 가른다. 그래서 **오른쪽을 계속 읽는다**.

오른쪽을 읽어 보니	그러면
뒤에 또 동사가 나온다	앞의 -ed는 수식이다
끝까지 동사가 안 나온다	그 -ed가 본동사다 (과거시제)

한 절에 동사는 하나뿐이다. 둘로 보이면 하나는 가짜다.

The experiment **conducted** by ... **showed** that ...

- ①동사? ②동사?
 → 둘 다 동사일 수 없다 → 앞의 **conducted**가 수식

이건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showed**를 만나는 순간 앞의 **conducted**가 자동으로 수식으로 확정된다. 판단을 미뤄 두고 전진하는 것이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쥔 것

개념 한 줄

한 절에 동사는 하나. 둘로 보이면 앞의 -ed가 수식이다.

동작 한 줄

-ed 앞에 be도 have도 없으면 판단을 미루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

보이는 것	자리
be + -ed	V (수동)
have + -ed	V (완료)
-ed 뒤에 또 동사가 나온다	형용사(수식)
-ed 뒤에 동사가 없다	V (과거시제)
, + -ed	부사(분사구문)

자주 나오는 수식 표지 — **named · called · known as · based on**

명사 뒤에서 이 넷을 만나면 거의 수식이다.

이 단어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훈련 본동사인지 수식인지 판정하라

밑줄 친 **-ed**를 보고, 필요하면 오른쪽을 끝까지 읽어라.

1 2019.03 고1 학평 42번 37%

The groups were **kept** apart for about a week.

판정 : _____ 근거 : _____

2 2019.03 고2 학평 31번 39%

After victory, the behaviors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were very similar.

판정 : _____ 근거 : _____

3 2022.09 고2 학평 41번 43%

This pressure from society **combined** with FOMO can wear us down.

판정 : _____ 근거 : _____

4 2011.09 고2 학평 20번 25%

Another robot **called** Stats Monkey can automatically use statistics to report sports news that reads like it was written by a journalist.

판정 : _____ 근거 : _____

5 2018.11 고2 학평 32번 40%

Both Sigmund Freud and the early behaviorists **led** by John B. Watson believed that humans were motivated primarily by selfish drives.

판정 : _____ 근거 : _____

다음 장 CH05는 **to V**다. -ing가 넷, -ed가 셋이었다면 to V는 셋인데 **셋 다 자주 나온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V (수동) 2019.03 고1 42번 · 37% — ㉠에서 끝

㉠ 처방 kept 앞에 were가 있다. ㉠에서 판정 끝.

㉠ 복구 The groups were kept apart — S V C(apt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 능동문 keep the groups apart에서는 목적격보어).

[2] 수식 2019.03 고2 31번 · 39% — 뒤에 were가 있다

㉠ 오독 "행동들이 보여줬다" →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에서 어색해지고, were에서 무너진다.

㉠ 처방 displayed 앞에 be도 have도 없다(㉠). 오른쪽을 계속 봐라. 6칸 뒤에 were가 있다. 동사가 둘일 수 없다 → 수식

㉠ 복구

the behaviors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S ————— L 어떤 행동? —————
were very similar
V C

[3] 수식 2022.09 고2 41번 · 43% — 뒤에 can wear가 있다

㉠ 오독 "사회로부터의 압박이 결합했다" → 뒤의 can wear가 갈 곳이 없다.

㉠ 처방 오른쪽에 can wear가 있다. → 수식

㉠ 복구

This pressure from society [combined with FOMO] can wear us down
S ————— L 어떤 압박? V(can wear...down) us=0

[4] 수식 2011.09 고2 20번 · 25% — called는 거의 항상 수식

㉠ 처방 오른쪽에 can automatically use가 있다 → 수식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부사가 끼어도 한 덩어리 V다. can만 보고 멈추지 마라.

㉠ 복구

Another robot [called Stats Monkey] can use statistics
S ————— L 어떤 로봇? V O

named · called · known as · based on — 명사 뒤에서 이 넷을 만나면 거의 수식이다.

[5] 수식 2018.11 고2 32번 · 40% — 주어가 길어 더 어렵다

㉠ 걸림돌

the early behaviorists led by John B. Watson.

㉡ 오독

led를 본동사로 잡으면 "행동주의자들이 이끌었다"가 된다. 그럴듯해서 그대로 간다. 그리고 5칸 뒤 believed에서 무너진다.

㉢ 처방

오른쪽에 believed가 있다 → 수식

㉣ 복구

Both Sigmund Freud and the early behaviorists

S

[led by John B. Watson] believed that ...

└ 어떤 행동주의자? ─ V O

Both A and B가 통째로 S다. S가 길다고 그 안에서 동사를 찾으면 안 된다.

훈련 다섯 중 넷이 "명사 뒤 수식"이었다. 의도한 편중이다 — 이 장의 위험은 거기 하나에 몰려 있다. 명사 뒤 -ed를 만나면 일단 오른쪽을 끝까지 보라.

to V의 세 자리

BEFORE

to V를 보면 "~하기 위해"로 먼저 옮겼다. 그게 안 맞으면 "~하는 것"으로 바꿔 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넘어갔다.

AFTER

to V를 지워 본다. 무너지면 자리, 서면 덧붙임이다. 서면 앞 한 칸을 봐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가른다.

이어받기 이번엔 셋 다 자주 나온다

장	형태	자리 수	실제 분포
CH03	-ing	넷	끌고루
CH04	-ed	셋	명사 뒤 수식에 위험이 물림
CH05	to V	셋	셋 다 자주 나온다

근거 to V가 어디에 붙는지 세어 봤다

to V가 있는 자리	문장 수
동사 바로 뒤	813
나머지 (목적 등)	215
명사 바로 뒤	196
주어 자리	1

주어로 쓰인 **to V**는 기출 전체에 한 문장뿐이다.

문법책은 "명사적 용법 = 주어·목적어·보어"를 나란히 가르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상 **동사** 뒤다.

지워 봐라. 무너지면 자리, 서면 덧붙임이다.

to V는 앞의 셋과 판정법이 다르다. -ing는 앞의 be를 봤고 -ed는 오른쪽을 봤다. to V는 지워 본다.

① to V를 지워 봐라.

문장이 무너지다 → 명사 자리 (동사가 요구한 0)

문장이 그대로 선다 → ②로

② 바로 앞이 명사인가?

예 → 형용사 (그 명사를 꾸민다)

아니오 → 부사 (~하기 위해)

두 단계뿐이다. 그리고 ①의 "지워 본다"는 PART II 전체에서 계속 쓸 도구다.

① 명사 자리 — 지우면 무너지다

2015.03 고2 학평 28번

23%

These organs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지워 보면 → These organs tend. × 무너지다

"이 내장들은 경향이 있다" — 무슨 경향?

tend는 "무엇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동사다. to be much higher in fat이 그 자리를 채운다. → 명사 자리 (CH02에서 배운 0)

같은 꼴이 아주 많다. want to · tend to · like to · need to · decide to — 813개가 이 자리다.

② 형용사 자리 — 지워도 서고, 앞이 명사다

2019.11 고1 학평 34번

40%

It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to repay** the provider.

지워 보면 → It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 선다

앞 한 칸 → desire (명사) → to repay가 desire를 꾸민다 = "보답하려는 욕구"

→ 형용사 자리

㉠ 부사 자리 — 지워도 서고, 앞이 명사가 아니다

2012.06 고2 학평 42번

22%

One morning in class, Daniel **got up to speak**.

지워 보면 → Daniel got up.

✓ 선다

앞 한 칸 → up (부사) — 명사가 아니다 → 문장 전체에 붙는다 = "연설하려고"

→ 부사 자리 (목적: ~하기 위해)

연결 문두 To V — CH03의 규칙이 그대로 온다

CH03에서 문두 -ing를 콤마로 갈랐다. 문두 to V도 똑같다.

자리	문장
주어	To do this is not easy and is always imperfect.
부사	To prove this wrong , Newton reversed the process.

콤마 없이 바로 동사가 온다 → 주어

콤마가 있고 뒤에 새 주어가 온다 → 부사(목적)

CH03에서 배운 것을 새 형태에 그대로 쓴 것이다. 판정법은 형태마다 새로 외우는 게 아니다.

다만 앞에서 봤듯 **주어로 쓰인 to V는 기술에 한 문장뿐이다**. 문두 To V를 만나면 **거의 부사(목적)**라고 보고 읽어 나가도 된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지워 보라. 무너지면 자리, 서면 덧붙임이다.

동작 한 줄

to V를 지워 보고, 문장이 서면 앞 한 칸을 보라.

지워 보니	앞 한 칸	자리
무너지다	—	명사 (동사의 O)
선다	명사 (비어 있음)	형용사 (~하는)
선다	그 외	부사 (~하기 위해)

문두 To V — 콤마 있으면 부사, 없으면 주어. 실제로는 **거의 부사**다.

훈련 지워 보고 자리를 판정하라

밑줄 친 **to V**를 지워 보고, 문장이 서는지부터 확인하라.

12015.03 고2 학평 28번 **23%**

These organs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22019.11 고1 학평 34번 **40%**

It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to repay** the provider.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32012.06 고2 학평 42번 **22%**

One morning in class, Daniel got up **to speak**.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42013.09 고1 학평 27번 **44%**

This includes the decision **to be** self-motivated.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52011.06 고1 학평 31번 **39%**

He is always looking around him **to see** who is appearing as a threat.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다음 장 CH06은 **that**이다. 형태 하나에 얼굴이 넷인데, 그중 둘은 아예 안 보일 때도 있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명사 자리 2015.03 고2 28번 · 23%

㉠ 처방 지워 보면 **These organs tend.** — 무너진다. **tend**가 요구하는 자리다.

㉡ 복구 **These organs / tend / [to be much higher in fat]** — S V O.
tend가 데려온 것은 **to be ~ 덩어리 전체**다. **much higher in fat**만 떼면 형용사구라 **O**가 될 수 없다.

[2] 형용사 자리 2019.11 고1 34번 · 40%

㉠ 처방 지워 보면 **It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 선다. 앞 한 칸이 **desire(명사)** → 형용사 자리.

㉡ 복구

It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to repay the provider]
S	V	O	어떤 욕구? ┘

[3] 부사 자리 2012.06 고2 42번 · 22%

㉠ 처방 지워 보면 **Daniel got up.** — 선다. 앞 한 칸이 **up(부사)** → 부사 자리.

㉡ 복구 **Daniel got up / to speak** — "연설하려고 일어났다".

[4] 형용사 자리 2013.09 고1 27번 · 44% — [2]와 같은 꼴

㉠ 걸림돌 **the decision to be self-motivated.**

㉡ 오독 **decision to be**를 [1]처럼 "결정한다"로 붙여 읽는다. 그러면 **This includes**의 목적어가 사라져 문장이 붕 뜬다.

㉢ 처방 지워 보면 **This includes the decision.** — 선다. 앞 한 칸이 **decision(명사)** → 형용사 자리.

㉣ 복구

This	includes	the decision	[to be self-motivated]
S	V	O	어떤 결정? ┘

스스로 동기 유발하겠다는 결정

decision · desire · way · ability · chance · effort — 이 명사들 뒤의 **to V**는 형용사다.
 이 단어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5] 부사 자리 2011.06 고1 31번 · 39% — 앞이 대명사라 헛갈린다

㉠ 걸림돌

looking around him to see.

㉡ 오독

앞의 **him**이 명사(대명사)라서 [2][4]처럼 "**~하는 그를**"로 꾸며 읽는다. → "위협으로 보이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를 둘러본다" — 뜻이 엉킨다.

㉢ 처방

순서를 지켜라. ㉠부터다.

지워 보면 **He is always looking around him.** — 선다. 그러면 ㉡로 간다.

㉡에서 앞 한 칸은 **him**이지만, **him**은 이미 **around**의 목적어다. 자리가 찼다. → **to see**가 꾸밀 명사가 없다 → **부사 자리**

㉣ 복구

He is always **looking** around him [to see who is appearing as a threat]

S V _____ _____ 무엇이려고? _____

그는 늘 주변을 둘러본다

누가 위협으로 나타나는지 보려고

㉢의 "앞이 명사인가"는 그 명사가 비어 있을 때만 통한다. **around him**처럼 앞 명사가 이미 다른 말에 붙어 있으면 **to V**는 그것을 꾸밀 수 없다.

이 장에서 쓴 도구 — **지워 보기**. 무너지면 자리, 서면 덧붙임.

PART II(CH07~CH09)에서 이 도구를 문장 전체로 넓힌다. **무엇을 지울 수 있고 무엇을 지우면 안 되는지**가 거기서 정해진다.

that의 네 얼굴

BEFORE

that이 나오면 "~라는 것"으로 옮겼다. 안 맞으면 "그"로 바뀌었다. **that이 안 보이면** 아예 손을 못 댔다.

AFTER

that 뒤가 완전한지를 본다. 그리고 **that이 안 보여도** 자리는 있다는 걸 안다 — 명사·동사 뒤에 S·V가 붙었으면 생략이다.

이어받기 PART I의 마지막 형태

장	형태	판정 도구	어디를 보나
CH03	-ing	be 유무	앞
CH04	-ed	뒤에 동사가 또?	오른쪽
CH05	to V	지워 본다	문장 전체
CH06	that	뒤가 완전한가	바로 뒤

근거 that이 실제로 쓰이는 방식

얼굴	문장 수
접속사 (명사절을 이끈다)	678
관계대명사 (앞 명사를 꾸민다)	308
지시형용사 (that + 명사)	112
지시대명사 (that이 혼자)	110

앞의 둘이 88%다. 그리고 앞의 둘이 어려운 것도 전부다.

that 뒤가 완전한가

that 뒤에 **명사**가 바로 붙는다 → **지시형용사** (that ability = 그 능력)
 that이 혼자 **S나 O** 자리에 있다 → **지시대명사** (that saves = 그것이 아낀다)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 **접속사** (빠진 자리가 없다)
 that 뒤에 **빠진 자리**가 있다 → **관계대명사** (그 자리를 that이 채운다)

"완전한가"가 무슨 뜻인가. S·V·O가 다 있으면 완전, 하나가 비면 불완전이다. **CH02**에서 배운 자리를 그대로 쓴다.

한 자리를 더 세야 한다 — 전치사 뒤.

the texts they will be interested in — S도 V도 있다. S·V·O만 세면 "완전"이 나온다. 그런데 **in** 뒤가 비었다. 불완전이다.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다(CH03).

문장 끝이나 콤마 앞에 **전치사가 혼자 서 있으면** 십중팔구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접속사 뒤가 완전하다

2017.11 고2 학평 39번 36%

Current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this should aid development.

that 뒤 → this should aid development
 S V O ← 다 있다. **완전하다**.
 → **접속사**

관계대명사 뒤에 자리가 빈다

2013.03 고1 학평 41번 41%

Plants make oxygen, a gas **that** animals need.

that 뒤 → animals need ____
 S V ? ← need의 **O**가 비었다. 불완전하다.
 → **관계대명사**. 빈 O 자리를 that이 채운다 (= a gas)

2021.11 고2 학평 37번 55%

This is a global problem **that** demands urgent action.

that 뒤 → ____ demands urgent action
 ? V O ← **S**가 비었다.
 → **관계대명사**. 빈 S 자리를 that이 채운다 (= a global problem)

접속사 that은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that은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뒤를 보면 갈린다.

관계절 안의 동사는 가짜가 아니다. **a gas that animals need**의 **need**는 진짜 동사다. 다만 **그 절의 동사일** 뿐이다. 동사가 둘로 보이면 하나가 가짜인 게 아니라 **절이 둘**이다(CH10).

안 보이는 that — 여기가 이 장의 핵심이다

문제 that은 자주 생략된다. 그런데 자리는 그대로 있다

2018.11 고1 학평 38번

정답률 26%

The way we communicate **influences** our ability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ies.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The way we communicate —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여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이걸 **문장**으로 읽는다. "우리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그리고 **influences**를 만난다. 동사가 또 나왔다. 무너진다.

The way [(that) we communicate] **influences** **our ability ...**

S ——— | 어떤 방식? ———

V

O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능력에

way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었다. 원래는 **The way that we communicate**다.

CH04에서 본 것과 똑같은 구조다. -ed도 명사 뒤에서 동사처럼 보였고, 생략된 that도 명사 뒤에서 문장처럼 보인다. 둘 다 오른쪽에 진짜 동사가 나오면서 정체가 드러난다.

판정 언제 생략되나 — 형태로 안다

명사 + [S + V] ← 명사 뒤에 갑자기 S·V가 오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

the way we communicate / something people do

동사 + [S + V] ← 동사 뒤에 갑자기 S·V가 오면 **접속사**가 생략된 것

I think he is right

둘 다 "두 개가 접착제 없이 붙어 있는" 모양이다. 그 자리에 **that**을 넣어 보면 확인된다.

고1·2 기출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은 971개**다. 명시된 관계대명사(308)보다 **3배 많다**. 드문 일이 아니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that의 정체는 뒤가 결정한다. 없어도 자리는 있다.

동작 한 줄

that을 보면 뒤가 완전한지, 안 보이면 명사·동사 뒤에 S·V가 붙었는지.

보이는 것	얼굴
that + 명사	지시형용사 (그 ~)
that이 혼자 S·O 자리	지시대명사 (그것)
that 뒤가 완전	접속사
that 뒤에 빈자리	관계대명사
명사 + S·V (that 없음)	관계대명사 생략
동사 + S·V (that 없음)	접속사 생략

※ 명사 뒤에 **완전한** that절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 표로는 안 잡힌다 — **CH07에서 본다.**

PART I 여섯 장에서 배운 판정 도구

형태	볼 것
단어 하나	앞뒤 한 칸 (CH01)
문장 전체	V가 무엇을 데려오는가 (CH02)
-ing	앞에 be가 있는가 · 콤마인가 (CH03)
-ed	오른쪽에 동사가 또 나오는가 (CH04)
to V	지우면 무너지는가 (CH05)
that	뒤가 완전한가 (CH06)

여기까지 뜻은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PART PART II는 **덜어냄**이다. CH05에서 맞은 "지워 보기"를 문장 전체로 넓힌다. 명사에 붙은 것, 문장에 붙은 것을 차례로 지운다. 그리고 **지우면 안 되는 것**을 만난다.

훈련 that의 얼굴을 판정하라 — [5]에는 that이 없다

밑줄 친 **that** 뒤가 완전한지부터 보라.

1

2017.11 고2 학평 39번

36%

Current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this should aid development.

뒤가 : _____ 얼굴 : _____

2

2013.03 고1 학평 41번

41%

Plants make oxygen, a gas **that** animals need.

뒤가 : _____ 얼굴 : _____

3

2020.06 고1 학평 32번

48%

That ability let our ancestors outmaneuver and outrun prey.

뒤가 : _____ 얼굴 : _____

4

2019.11 고2 학평 42번

50%

When we make correct predictions, **that** saves energy.

뒤가 : _____ 얼굴 : _____

5

2018.11 고1 학평 38번

26%

The way we communicate influences our ability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ies.

생략된 **that**의 자리 : _____ 본동사 : _____

덜어냄

붙은 것을 지운다 — 단,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2

자리를 정했으면 **붙은 것**을 걷어낸다. 명사에 붙은 것과 문장에 붙은 것은 지워도 문장이
서 있다. 단, 지우면 문장이 무너지는 **다섯 가지**가 있다.

CHAPTER 07 명사에 붙은 것

명사 + 살

CHAPTER 08 문장에 붙은 것

문장 + 살

CHAPTER 09 지우면 안 되는 것

지우기 금지

명사에 붙은 것

BEFORE

주어가 길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몰라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동사를 찾았다. 그러다 중간에 나온 동사를 본동사로 착각했다.

AFTER

명사 하나만 남기고 뒤를 걷어낸다. 뼈대가 먼저 서고, 살은 나중에 붙인다.

이어받기 PART II가 시작된다

PART I에서는 자리를 찾았다. PART II에서는 찾은 자리만 남기고 지운다. CH05에서 **to V**를 지워 봤다. 그 도구를 이제 문장 전체에 쓴다.

- CH07 명사에 붙은 것을 지운다 ← 지금
CH08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운다
CH09 지우면 안 되는 것

회수 CH01의 그 문장으로 돌아간다

2011.11 고2 학평 24번

20%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CH01에서 **must match**의 **match**가 동사라는 걸 알아냈다. 이제 나머지를 지운다.

The proper amount [of music] **must match** the nature [of the picture itself]
S ————— L 지운다 V O ————— L 지운다 ———

→ 뼈대: The amount must match the nature. 양이 본질에 맞아야 한다.

of ~를 둘 다 지워도 문장이 선다. 지운 것은 "어떤 양?"과 "어떤 본질?"에 답하는 살이었다.

여기서 지운 둘 중 앞의 것은 **S**에, 뒤의 것은 **O**에 붙었다. 규칙은 같다. 이 장은 "명사에 붙은 것"이지 "주어에 붙은 것"이 아니다 — S든 O든 C든 명사이기만 하면 된다.

뼈대가 먼저 서면 살은 나중에 붙여도 된다. 순서를 지키면 긴 문장도 안 무너진다.

명사에 붙는 것은 다섯 가지다

붙는 것	모양	예
전치사구	of · with · in · like ...	the amount of music
관계절	that · who · which + 불완전	the work that produces X
분사	-ing · -ed	the experiment conducted by X
to V	to + 동사원형	the desire to repay
동격	кома + 명사	Winston Churchill, head of the navy ,

전부 "어떤 ~?"에 답한다. 그리고 전부 명사 뒤에 온다.

PART I에서 하나씩 배운 것들이다 — CH03-CH04(분사) · CH05(to V) · CH06(관계절). 이제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명사를 늘린다는 걸 본다.

명사 하나만 남긴다

관계절 S가 10단어 → 2단어

2012.11 고2 학평 35번

31%

The mental work **that produces impressions, intuitions, and many decisions** goes on in silence in our mind.

The mental work [that produces impressions, intuitions, and many decisions] **goes on**
 S _____ 지운다 (어떤 작업?) _____ V

→ 뼈대: **The work goes on.** 그 작업은 진행된다.

S가 10단어였다. 지우니 2단어다. 그리고 V가 바로 보인다.

동격 콤마 두 개 사이는 통째로

2014.09 고2 학평 38번

46%

However, Winston Churchill, **head of the navy**, thought the idea had potential and his department funded its development.

[However,] Winston Churchill [, head of the navy,]
 S _____ 지운다 (동격) _____
 thought **the idea had potential**
 V O

→ 뼈대: **Churchill thought ...**

동격은 앞 명사를 다시 말한 것이라 없어도 문장이 선다.

확장 CH06 규칙의 빈틈

CH06에서 이렇게 배웠다 — **that** 뒤가 완전하면 접속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그런데 이 문장을 보자.

2018.11 고1 학평 38번

26%

...the likelihood **that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diminishes.

that 뒤 →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S

V

O

← 완전하다

완전하니 접속사인가? 그런데 **앞이 명사(likelihood)**다. 접속사 **that**절은 명사 뒤에 붙지 않는다.

규칙을 넓힌다 — 앞을 함께 본다

that 뒤	that 앞	정체
완전	동사	접속사 (그 동사의 O)
완전	명사	동격절 (그 명사의 내용)
불완전	명사	관계대명사

the likelihood [that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diminishes

S

└─ 지운다 (무슨 가능성?) ─┘

V

→ 뼈대: **The likelihood diminishes.** 그 가능성은 줄어든다.

CH06은 뒤만 봤다. 여기서 앞을 더한다. 규칙이 틀린 게 아니라 좁았다.

동격절을 만드는 명사는 정해져 있다 — **fact · idea · belief · likelihood · news · possibility.**

이 단어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명사에 붙은 것은 전부 "어떤 ~?"에 답한다.

동작 한 줄

S를 찾았으면 그 명사 하나만 남기고 뒤를 걷어내라.

붙는 것	지우는 표시
전치사구	of · with · in · like ...
관계절	that · who · which + 불완전
분사	-ing · -ed
to V	명사 바로 뒤의 to
동격	콤마 두 개 사이
동격절	that + 완전 , 앞이 명사

훈련 S에 붙은 것을 지우고 뼈대만 남겨라

지운 덩어리에 []를 치고, 남은 뼈대를 적어라.

1

2018.03 고2 학평 31번 18%

A dictator like Zimbabwe's Robert Mugabe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to produce 100 trillion tons of rice.

뼈대 : _____

2

2011.06 고1 학평 31번 39%

The person who compares himself to others lives in a state of fear.

뼈대 : _____

3

2012.06 고2 학평 39번 16%

But Robert W. Shumaker, the author of Orangutans, is more interested in the sort of symbolic tools that can affect emotions.

뼈대 : _____

4

2018.11 고1 학평 34번 34%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es predator species from prey species isn't the presence of claws or any other feature related to biological weaponry.

뼈대 : _____

5

2018.11 고1 학평 38번

26%

However, as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the likelihood that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diminishes.

빠져대 : _____

다음 장

CH08은 문장에 붙은 것이다.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 붙는 살을 지운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전치사구 2018.03 고2 31번 · 18%

㉠ 처방

like ~는 전치사구다. 명사 뒤에 붙었으면 지운다.

㉡ 복구

A dictator [like Zimbabwe's Robert Mugabe]
 S ———— └ 지운다 (어떤 독재자?) ┘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
 V O

→ 뼈대: A dictator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CH01에서 **order**가 동사라는 걸 알아냈다. 이제 그 앞의 살을 건어 **S**를 확정한다.

[2] 관계절 2011.06 고1 31번 · 39%

㉠ 처방

who 뒤가 **compares himself to others** — **S**가 비었다. 관계절이다(CH06). 통째로 지운다.

㉡ 복구

The person [who compares himself to others] lives in a state of fear
 S ———— └ 지운다 (어떤 사람?) ┘ V └ 덧붙임 ┘

→ 뼈대: The person lives. 그 사람은 산다.

in a state of fear도 지울 수 있다. 다만 그건 명사가 아니라 문장에 붙은 것이라 CH08의 몫이다.

[3] 동격 2012.06 고2 39번 · 16%

㉠ 걸림돌

Robert W. Shumaker, the author of Orangutans, is ...

㉡ 오독

кома 뒤의 **the author**를 새로운 주어로 잡는다. 그러면 **is**의 주어가 둘이 되어 헷갈린다.

㉢ 처방

кома 두 개 사이는 동격이다. 앞 명사를 다시 말한 것이니 통째로 지운다.

㉣ 복구

Robert W. Shumaker [, the author of Orangutans,]
 S ———— └ 지운다 (동격) ┘
 is more interested in symbolic tools
 V C

→ 뼈대: Shumaker is interested.

[4] 관계절 2018.11 고1 34번 · 34% — S가 길어 V를 놓친다

㉠ 걸림돌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es predator species from prey species isn't ...

㉡ 오독

distinguishes를 본동사로 잡는다 → "핵심 특징이 구별한다". 그럴듯해서 계속 읽다가 **isn't**에서 무너진다. 동사가 둘이 됐다.

㉢ 처방

that 뒤 **distinguishes** ~는 **S가 빈** 불안정한 절이다 → 관계절 → 지운다. 지우고 나면 남은 동사는 **isn't** 하나다.

㉣ 복구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es predator species from prey species]

S _____ 지운다 (어떤 특징?) _____

isn't the presence of claws

V C

→ 뼈대: **The feature isn't the presence.****[5] 동격절** 2018.11 고1 38번 · 26%

㉢ 처방

that 뒤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는 완전하다. 그런데 앞이 **명사(likelihood)**다 → **동격절** → 지운다.

㉣ 복구

[However, as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_____ CH08: 문장에 붙은 것 _____

the likelihood [that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 **diminishes**

S _____ 지운다 (무슨 가능성?) _____ V

→ 뼈대: **The likelihood diminishes.**

다섯 문장 전부 S가 길었다. 그리고 전부 명사 하나만 남기고 지우니 뼈대가 드러났다.

[1]과 [4]에서 본 것 — S가 길면 그 안의 동사를 본동사로 착각한다. 지우면 진짜 V가 하나만 남는다.

문장에 붙은 것

BEFORE

문장이 길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읽었다. 문두의 긴 덩어리를 주절로 착각해, 진짜 주어와 동사를 놓쳤다.

AFTER

문두 콤마까지 지우고 S를 찾는다. 문미의 전치사구·분사구문도 지운다. 남는 건 S·V·O뿐이다.

이어받기 붙는 자리가 둘이다

장	어디에 붙나	지우면
CH07	명사에	S가 짧아진다
CH08	문장에	S·V·O만 남는다

같은 전치사구인데 붙는 자리가 다르다. 이미 둘 다 봤다.

CH07 The proper amount [of music] → of 앞이 **명사**(amount) → **명사에** 붙었다
 CH02 anger reside [in our heads] → in 앞이 **동사**(reside) → **문장에** 붙었다

전치사구 바로 앞이 명사면 그 명사에, 동사면 문장에 붙은 것이다. 뜻을 따질 필요가 없다.

문장에 붙는 것은 네 가지다

붙는 것	표지	예
부사	-ly · 문두 한 단어	Thus , every task can be done
전치사구	동사 뒤의 in · for · with ...	reside in our heads
부사절	접속사 when·because·if·although·as	because they were angry
분사구문	콤마 + -ing / -ed	Generally speaking , economy is ...

넷 다 지워도 문장이 선다. 그게 "문장에 붙었다"는 뜻이다.

㉠ 부사 — 문두 한 단어

2018.03 고2 학평 31번

18%

Most importantly, money needs to be scarce in a predictable way.

[Most importantly,] money needs to be scarce [in a predictable way]
 └ 지운다 ┘ S V O └ 지운다 ┘

→ 뼈대: Money needs to be scarce.

㉡ 부사절 — 접속사가 표지다

2022.03 고2 학평 42번

19%

They didn't have such ceaseless fights **because they were angry**.

They didn't have such ceaseless fights [because they were angry]
 S V O └ 지운다 ┘

→ 뼈대: They didn't have fights.

접속사(because)가 보이면 그 뒤는 통째로 한 덩어리다. 어디서 끝나는지는 문장 끝이거나 콤마다.

㉢ 분사구문 — 콤마 + -ing

2011.11 고2 학평 24번

20%

Generally speaking, economy is a great virtue in film music, both in duration and in choice of instrument.

CH03에서 배운 그것이다. 콤마 뒤에 새 주어가 없으면 분사구문 → 문장에 붙은 것 → 지운다.

[Generally speaking,] economy is a great virtue [in film music]
 └ 지운다 ┘ S V C └ 지운다 ┘

→ 뼈대: Economy is a virtue.

CH01의 그 지문이다. 빈칸 정답 **economy**가 무엇인지 판정할 때, 이 문장의 뼈대는 **Economy is a virtue** 넷뿐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살이다.

문두에 있으면 거의 다 지운다

문장에 붙은 것은 **문두**나 **문미**에 몰린다. 특히 문두다.

[문두 덩어리,] S V O [문미 덩어리]
 ↳ 지운다 ↳ 지운다

문두에서 콤마를 만나면 그 앞은 대개 살이다. 콤마까지 지우고 S를 찾아라.

문두에 오는 것	예
부사	Thus, / Instead, / However,
전치사구	In some cases, / After victory,
부사절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분사구문	Generally speaking, / Starting at \$200,

네 가지가 전부 콤마로 끝난다. 그래서 문두 콤마가 강력한 표지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문장에 붙은 것은 문두와 문미에 몰린다.

동작 한 줄

문두의 부사구·종속절이 콤마로 닫힐 때만 그 덩어리를 지우고 S를 찾아라.

붙는 것	표지	지우나
부사	-ly · 문두 한 단어	○
전치사구	동사 뒤의 in·for·with	○
부사절	접속사 when·because·if·as	○ (통째로)
분사구문	콤마 + -ing/-ed	○
등위절	and·but 뒤에 새 S·V	× 절이다

훈련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우고 빼대만 남겨라

지운 덩어리에 []를 치고, 남은 빼대를 적어라.

1 2018.03 고2 학평 31번 18%

Most importantly, money needs to be scarce in a predictable way.

빼대 : _____

2 2014.06 고1 학평 30번 24%

He went hungry nine times out of ten because his prey got away.

빼대 : _____

3 2022.03 고2 학평 42번 19%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they had arguments that lasted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and months at a time.

빼대 : _____

4 2012.06 고2 학평 33번 22%

Thus every task can be done by an expert,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빼대 : _____

5 2021.11 고1 학평 30번 25%

In some cases captive-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s.

빼대 : _____

다음 장 여기까지 "지운다"만 배웠다. CH09에서는 지우면 안 되는 것을 만난다. 규칙이 뒤집힌다.

[4] 부사 + 등위절 2012.06 고2 33번 · 22%

㉠ 처방

문두 **Thus** 지운다. **by an expert**는 **done** 뒤의 전치사구, 지운다.

㉡ 복구

[Thus] every task can be done [by an expert],

S

V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등위 S

V

→ 뼈대: Every task can be done, and everything gets done.

and 뒤는 지우면 안 된다. 새 S·V가 있는 또 하나의 절이지 살이 아니다.
 살과 절의 구분 — 새 S·V가 있으면 절이다.

[5] 전치사구 + 분사구문 2021.11 고1 30번 · 25% — 앞뒤로 붙었다

㉠ 처방

문두 **In some cases** 지운다. 문미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s**는 콤마 + **-ing** → 분사구문 → 지운다.

㉡ 복구

[In some cases] captive-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 지운다 ┐ S

V

back into the wild,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s]

└ 지운다 ┐

→ 뼈대: Individuals may be released.

captive-bred는 명사 앞의 **-ed**(CH04)라 **S** 안에 남는다. 지우는 건 문장에 붙은 것뿐이다.

PART II를 여기까지 — 명사에 붙은 것(CH07)과 문장에 붙은 것(CH08)을 다 지웠다. 남은 건 **S·V·O**뿐이다. 그런데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다음 장에서 규칙이 뒤집힌다.

지우면 안 되는 것

BEFORE

배운 대로 다 지웠다. 남은 문장이 문법적으로 멀쩡해서 맞게 읽은 줄 알았는데, 정작 글의 요점을 놓쳤다.

AFTER

지우기 전에 짝을 확인한다. 지운 뒤 남은 것을 읽어, 짝을 잃은 말이 있으면 되살린다.

이어받기 규칙이 뒤집힌다

장	배운 것
CH07	명사에 붙은 것을 지운다
CH08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운다
CH09	그런데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두 장 내내 "지워라"만 했다. 이 장에서 그 규칙이 깨지는 자리를 만난다.

문제 문법은 멀쩡한데 뜻이 반쪽이다

2017.09 고2 학평 33번

39%

Human reactions are **so** complex **that they can be difficult to interpret objectively.**

CH08에서 배운 대로 하면 **that** ~은 지운다.

Human reactions are so complex [that they can be difficult to interpret]

→ 남은 것: Human reactions are so complex.

문장이 멀쩡하다. S도 있고 V도 있고 C도 있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런데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인간의 반응은 너무 복잡하다." — 너무, 얼마나?

so가 혼자 남았다. **so**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데려와야 하는 말인데, 그 짝이 **that** ~이었고 그걸 지워 버렸다.

짜를 잃은 신호어가 남으면 못 지운 것이다

지우려는 덩어리 안에 짝의 뒤쪽이 있고, 앞쪽이 문장에 남는다면 — 지우면 안 된다.

지우기 판정 기준	
CH07·CH08	자리 — 명사에 붙었나, 문장에 붙었나
CH09	짹 — 지운 뒤 짹을 잃은 신호어가 남는가

목록 짹 신호어 —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찾아라

앞쪽을 보면	뒤쪽을 찾아라	출현
more / -er	than	338
as	as	216
so	that	164
rather	than	94
such	that	85
not only	but (also)	59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43
either / neither	or / nor	40

동작은 하나다. 왼쪽 것을 봤으면 오른쪽 것을 찾아라.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

지우면 안 되는 것 네 가지

필수 부사구 — V가 요구하는 것

2022.11 고2 학평 41번

47%

But that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지우면 → **that didn't keep it.** ←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문법은 서지만 뜻이 딴 데로 간다. **keep A from B**는 셋이 한 덩어리다.

keep A from B · provide A with B · prevent A from B · regard A as B · think of A as B

이 동사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부정어 — 지우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

not · no · never · hardly · rarely

부사라고 지우면 문장의 방향이 뒤집힌다. 부정어는 살이 아니라 뼈대다.

㉠ 등위절 — 살이 아니라 절이다

CH08 해설에서 봤다. **and·but** 뒤에 새 S·V가 있으면 그건 또 하나의 절이다.

Every task can be done,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S V ↑ 새 S·V가 있다 → **절이다** → 못 지운다

함정 짝이 맞는데 비교가 아닌 것

2025.03 고1 학평 42번

29%

Numbers are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than** words, music, or painting.

more도 있고 **than**도 있다. 짝은 맞았다. 그런데 앞에 **no**가 붙었다.

no가 **more**를 부정한다 — "**than** 뒤보다 더 ~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no·than**은 짝이라 반쪽만 지우면 안 된다.
 → 숫자는 말·음악·그림보다 더 적절한 '세상의 묘사'가 아니다.

more만 보고 "더 ~하다"로 읽으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

CH01의 그 문장도 이것이었다

The musical score should do **no more than** is necessary to perform its proper function clearly and simply.

no more than = "~에 지나지 않는, 겨우". "필요한 것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CH01 빈칸의 정답 **economy**(절약)의 근거가 바로 이 문장이었다.

덩어리	뜻	비교인가
no more than	겨우, ~에 불과한	× 강조
no less than	무려, ~씩이나	× 강조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 B	△ 짝이 as
rather than	~보다는	○
prefer A to B · superior to	짝이 to	○

PART II 최종 판정 순서

- ① 지을 후보를 찾는다 명사에 붙었나(CH07) · 문장에 붙었나(CH08)
- ② 짝을 확인한다 앞쪽 신호어가 있으면 뒤쪽을 찾는다
- ③ 지운다
- ④ 남은 것을 읽는다 짝을 잃은 말이 있으면 되살린다

㉠을 건너뛰면 ㉠에서 걸린다. 그러니 지우기 전에 짝부터 본다.

짝이 문장 안에 없을 때도 있다. **four times more likely**처럼 **more**만 있고 **than**이 안 보이면 안 쓴 게 아니라 앞 문장에 있는 것이다. 문장 안을 다 뒤졌는데 없으면 **문장 밖을 본다**(CH14). 짝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짜를 반쪽 내면 뼈대가 부러진다.

동작 한 줄

지우기 전에 짝부터 확인하고, 지운 뒤 남은 것을 읽어라.

지우면 안 되는 것	표지
짜의 반쪽	more~than · as~as · so~that · not only~but
필수 부사구	keep A from B · provide A with B · regard A as B
부정어	not · no · never · hardly
등위절	and~but 뒤에 새 S·V

훈련 지울 수 있는 것과 지우면 안 되는 것을 갈라라

지울 것에 [], 지우면 안 될 것에 ○를 쳐라.

1

2017.09 고2 학평 33번

39%

Human reactions are so complex that they can be difficult to interpret objectively.

지울 것 : _____ 지우면 안 될 것 : _____

2

2022.11 고2 학평 41번

47%

But that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지울 것 : _____ 지우면 안 될 것 : _____

3

2014.06 고2 학평 23번

37%

Not only is it easy to lie with maps, but it's essential.

지울 것 : _____ 지우면 안 될 것 : _____

4

2025.03 고1 학평 42번

29%

Numbers are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than words, music, or painting.

지울 것 : _____ 지우면 안 될 것 : _____

5

2012.06 고2 학평 33번

22%

Thus every task can be done by an expert,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지울 것 : _____ 지우면 안 될 것 : _____

다음 PART

PART III는 이어붙임이다. 지우고 남은 **S**와 **V**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둘을 잇는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짝 — so ~ that 2017.09 고2 33번 · 39%

㉠ 처방

so를 봤으면 **that**을 찾아라. 둘이 짝이다. **that** 뒤는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짝의 반쪽**이다.

so ~ that은 비교가 아니라 **정도·결과**다. 이 장 [4]의 **no more ~ than**과 헷갈리지 마라 — 공통점은 **짝이라는 것**뿐이다.

㉡ 복구

Human reactions **are** **so** complex

S V C ———

that they can be difficult to interpret

얼마나 복잡한가 =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objectively(부사)는 지워도 된다. **짝이 아닌 것만 지운다**.

[2] 필수 부사구 2022.11 고2 41번 · 47%

㉠ 오독

from fabricating an answer를 전치사구로 보고 지운다 → **that didn't keep it** =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원래 뜻은 "답을 꾸며 내는 걸 막지 못했다"인데 **정반대에 가까워진다**.

㉡ 처방

keep은 **from**을 요구하는 동사다. **keep A from B**가 한 덩어리.

㉢ 복구

that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S V O └ V가 요구하는 자리 ┘

그것이 막지 못했다 그것을 답을 꾸며 내는 것으로부터

[3] 짝 — not only ~ but 2014.06 고2 23번 · 37%

㉠ 걸림돌

문두 **Not only is it ...** — 어순이 뒤집혀 있다.

도치다. 기출 100개 중 한 개도 안 되는 어순이라 이 책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놀라지 말고 **V를 먼저 잡고 S를 뒤에서 집는다** — is ← it.

㉡ 처방

Not only를 봤으면 **but**을 찾아라. **but it's essential**을 지우면 **Not only**가 홀로 남는다.

㉢ 복구

Not only is it easy to lie with maps, **but** it's essential

└ 앞쪽 ┘ └ 뒤쪽 ┘

쉬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not only A but B는 **A와 B 둘 다 말하는 것**이다. 하나를 지우면 절반만 남는다.

[4] 함정 2025.03 고1 42번 · 29% — 짝은 맞는데 비교가 아니다

ⓐ 오독

more를 보고 "더 적절하다"로 읽는다 → "숫자가 말보다 더 적절하다". 원문은 정반대다.

ⓑ 처방

more 앞의 **no**를 보라. **no**가 **more**를 부정한다 → "**than** 뒤보다 더 적절하지는 않다".

ⓒ 복구

Numbers are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than** words, music,

_____ 한 덩어리 _____

= 숫자는 말·음악·그림보다 더 적절한 '세상의 묘사'가 아니다

than 뒤를 지우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no**도 지우면 안 된다. 부정어는 빼대다(㉔).**[5] 등위절** 2012.06 고2 33번 · 22% — 살이 아니다

ⓐ 처방

and 뒤에 새 **S-V(everything gets done)**가 있다. → **절이다** → 못 지운다. 지울 수 있는 건 **Thus**와 **by an expert**뿐이다.

ⓒ 복구

[Thus] every task can be done [by an expert],

S V

and everything gets done better

등위 S V

└ 절 1 ─ └ 절 2 ─

PART II를 마치며 — 명사에 붙은 것(CH07)과 문장에 붙은 것(CH08)을 지우는 법, 그리고 **지우면 안 되는 것**(CH09)까지 배웠다. 이제 남은 빼대에서 **S**와 **V**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잇는지가 **PART III**다.

이어붙임

떨어진 것을 잇는다 — S와 V, 삽입 너머, and가 묶은 둘



지우고 나면 S와 V만 남는다. 그런데 둘이 멀다. 삽입을 넘고 and가 묶은 둘을 확인해 **S**와 **V**를 붙인다. 여기서 뼈대가 완성된다.

CHAPTER 10	S는 V를 기다린다	S ... V
CHAPTER 11	삽입을 넘어라	[삽입]
CHAPTER 12	and는 무엇을 묶는가	A and B

급	끼 것	거리	예
1	전치사구	4칸	Fear of sharks has kept ...
2	관계절	6칸	clothes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are ...
3	삽입(콤마 쌍)	4칸	Most animals , however, are ...
4	분사	5칸	participants speaking to negative listeners focused ...
5	중첩	11칸	A person who has learned ... is ...

전부 PART II에서 지우는 법을 배운 것들이다. 새로 배울 게 없다 — 끝나는 지점만 찾으려면 된다.

1급 전치사구

2015.11 고1 학평 38번

28%

Fear of sharks **has kept** many pool swimmers from testing the ocean water.

Fear [of sharks] **has kept** many pool swimmers
 S ↳ 4칸 V O
 [from testing the ocean water]
 ↳ CH09: 못 지운다 —

keep A from B는 CH09에서 본 필수 부사구다. from ~은 지우면 안 된다.

3급 삽입 — 콤마 두 개가 표지다

2022.11 고2 학평 30번

39%

Most animals, however,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콤마 두 개 사이는 통째로 넘긴다. 콤마가 닫히는 자리에서 V가 나온다.

동작 세 걸음

- ① S를 잡는다 문장 맨 앞의 명사
- ② 표시하고 넘어간다 그 뒤에 붙은 살은 지금 안 읽어도 된다
- ③ V가 나오면 잇는다 동사가 나오는 순간 ①과 잇는다

②가 핵심이다. 살을 다 이해하려고 멈추지 말고 표시만 하고 지나간다.

이건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①에서 S를 잡아 두었기 때문에 V를 만나는 순간 자동으로 이어진다. CH04에서 배운 것과 같다 — 판단을 미뤄 두고 전진하는 것.

확장 동사를 세면 문장이 보인다

앞에서 이렇게 배웠다 — 한 절에 동사는 하나다. 둘로 보이면 하나는 가짜다.(CH04)

2017.11 고1 학평 34번

26%

Yesterday they **were** in love with your idea; today they **seem** cold.

동사가 둘이다. **were**와 **seem**. 그런데 **and**도 **but**도 **that**도 없다. 규칙대로라면 하나가 가짜여야 하는데 둘 다 진짜다.

규칙이 틀린 게 아니라 좁았다. ; 를 보라. 세미콜론은 마침표를 반만 찍은 것이다. 접속사와 같은 일을 한다.

연결 장치	예
등위접속사	and, but, or, so
종속접속사	that, because, when, if, although ...
관계사	who, which, that, where ...
의문사	what, how, why (명사절을 이끌 때)
구두점	; ∴ —

고1·2 기출에서 구두점이 연결 장치로 쓰인 문장은 **800개** (세미콜론 287 · 콜론 404 · 대시 109)다. 드문 예외가 아니다.

$$\text{정동사 수} = \text{연결 장치 수} + 1$$

중요한 건 공식이 맞을 때가 아니라 안 맞을 때다.

세어 보니	무슨 뜻인가	할 일
정동사 = 연결 + 1	정상. 다 진짜 동사다	그대로 읽는다
더 많다	㉠ 가짜 동사를 켜다(준동사) ㉡ 연결 장치가 생략됐다	가짜부터, 없으면 생략 의심
더 적다	그 연결 장치는 절이 아니라 단어를 이었다	and가 무엇을 이었는지

㉡의 생략은 CH06에서 배웠다. **the way (that) we communicate · I think (that) he is right**.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 **971개**다. 공식이 안 맞는데 가짜 동사도 없다면 십중팔구 여기서다.

세어 보자 2019.03 고2 학평 28번 · 26%

In fact, koalas **spend** little time **thinking**; their brains actually **appear to have shrunk** over the last few centuries.

동사처럼 보이는 것: **spend · thinking · appear · have shrunk** → 4개

연결 장치: ; → 1개

공식대로면 정동사는 2개여야 한다. 둘이 가짜다.

thinking -ing인데 앞에 be동사가 없다(CH03) → 가짜
to have shrunk 앞에 to가 붙었다(CH05) → 가짜

남은 진짜: **spend, appear.** 2 = 1 + 1 ✓

확인 2012.06 고2 학평 42번 · 22%

As he practiced his speech, Daniel literally spent hours trying to mimic Rick's deep, resonant musical notes.

[1] 동사처럼 보이는 것 ()개 : _____

[2] 연결 장치 ()개 : _____

[3] ○ = △ + 1 인가? 예 / 아니오

[4] 아니면 가짜는? _____ 근거는? _____

[답] [1] **practiced · spent · trying · mimic** → 4개 · [2] **As** → 1개
 [3] 4 ≠ 2 → **아니오** · [4] **trying**(-ing인데 be 없음) · **mimic**(앞에 to)
 → 남은 진짜: **practiced, spent.** 2 = 1 + 1 ✓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S가 기다는 건 V가 멀다는 뜻이다.

동작 한 줄

S를 잡고 표시만 하고 넘어가라. V가 나오면 그때 잇는다.

사이에 낀 것	어디서 끝나나
전치사구	명사 하나 지나면
관계절	who·that 이 연 덩어리가 닫히는 곳
삽입	두 번째 콤마
분사	-ing·-ed 덩어리 끝
중첩	가장 바깥 덩어리가 닫히는 곳

막히면 동사를 세라 — 정동사 수 = 연결 장치 수 + 1

훈련 S에 O, V에 △를 치고 거리를 적어라

사이에 낀 것이 몇 급인지도 함께 적어라.

1 2015.11 고1 학평 38번 28%

Fear of sharks has kept many pool swimmers from testing the ocean water.

거리 : _____ 급 : _____

2 2019.03 고1 학평 28번 46%

In warm environments, clothes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are helpful in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거리 : _____ 급 : _____

3 2022.11 고2 학평 30번 39%

Most animals, however,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거리 : _____ 급 : _____

4 2015.09 고1 학평 40번 30%

In contrast, participants speaking to negative listeners focused solely on objective facts and concrete details.

거리 : _____ 급 : _____

5 2016.09 고1 학평 37번 41%

A person who has learned a variety of ways to handle anger is more competent and confident.

거리 : _____ 급 : _____

다음 장 CH11은 삽입이다. S와 V 사이가 아니라 **문장 아무 데나** 끼어드는 것들을 본다.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1급 · 전치사구 (4칸) 2015.11 고1 38번 · 28%

㉠ 처방

Fear 뒤의 **of sharks**는 명사에 붙은 전치사구(CH07). 넘긴다.
그러면 **has kept**가 V다. 뒤의 **from ~은 keep**이 요구하는 짝이라 지우지 않는다(CH09).
아래 []는 넘긴다는 표시일 뿐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 복구

Fear [of sharks] **has kept** many pool swimmers
S L 4칸 V O
[from testing the ocean water]
L CH09: 필수 부사구, 못 지운다 L

[2] 2급 · 관계절 (6칸) 2019.03 고1 28번 · 46%

㉠ 처방

that have a wicking capacity는 **clothes**를 꾸미는 관계절(CH06-CH07). **that** 뒤에 **S**가 비었으니 관계대명사다. 덩어리가 닫히는 지점에서 **are**가 나온다.

㉡ 복구

[In warm environments,] clothes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L CH08: 문장에 붙음 L S L 6칸 L
are helpful ...
V C

[3] 3급 · 삽입 (4칸) 2022.11 고2 30번 · 39%

㉠ 처방

кома 두 개 사이는 통째로 넘긴다. 콤마가 닫히는 자리에서 V가 나온다.

㉡ 복구

Most animals [, however,] are darker above
S L 삽입 V C
than they are below
L CH09: than은 짝, 못 지운다 L

[4] 4급 · 분사 (5칸) 2015.09 고1 40번 · 30%

㉠ 오독

speaking을 본동사로 잡는다 → "참가자들이 말했다". 그러면 뒤의 **focused**가 갈 곳이 없다.

㉡ 처방

speaking 앞에 be동사가 없고(CH03), 뒤에 주절의 V **focused**가 온다. 그러니 **speaking to negative listeners** 덩어리는 정동사가 아니라 앞 명사 **participants**에 붙어 '어떤 참가자?'에 답하는 분사다(CH07).

㉢ 복구

[In contrast,] participants [speaking to negative listeners]
S L 5칸 L
focused solely on objective facts
V

[5] 5급 · 중첩 (11칸) 2016.09 고1 37번 · 41%

㉠ 걸림돌

A person who has learned ... — S 덩어리가 길다.

㉡ 오독

has learned를 본동사로 잡는다. 그대로 읽다가 **is**에서 무너진다.

㉢ 처방

동사를 세라. **has learned**와 **is** 둘. 연결 장치는 **who** 하나. $2 = 1 + 1$ ✓ → 둘 다 진짜 동사다. 그러면 **has learned**는 **who**가 이끄는 절의 동사이고, **is**가 주절의 V다.

㉣ 복구

A person [who has learned a variety of ways to handle anger]

S ——— 11칸 ———
 is more competent and confident
 V C

관계절 안에도 동사가 있다. 그게 가짜는 아니다 — **who**라는 연결 장치가 그 자리를 열어 준 것이다. **가짜 동사(준동사)**와 다른 절의 동사를 구분하는 게 공식의 쓸모다.

삽입을 넘어라

BEFORE

coma나 대시가 나오면 거기 붙들려 읽었다. 정작 그 뒤에 본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잊었다.

AFTER

여는 표지를 보면 닫는 표지를 찾는다. 그 사이는 통째로 넘기고, 뼈대를 세운 뒤에 되읽는다.

이어받기 CH10과 무엇이 다른가

장	어디에 끼나	할 일
CH10	S와 V 사이	S를 잡고 V를 기다린다
CH11	문장 아무 데나	여는 표지를 보면 닫는 표지를 찾는다

CH10에서는 끝이 어디인지를 살의 종류로 판정했다. 삽입은 그럴 필요가 없다 — 여는 표지와 닫는 표지가 같기 때문이다.

넘긴다 ≠ 지운다. PART II에서 **지운** 것은 뼈대에 없는 살이라 안 읽어도 문장이 선다. 삽입은 **읽는 순서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다.

지운 것은 필요한 것만 되살리지만(CH15), **넘긴 것은 반드시 돌아와서 읽는다.**

문제 대시 두 개가 S와 V를 끊는다

2018.03 고1 학평 31번

37%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 **if it ever happens** — may require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여기까지 맞다.

그 다음 — **if it ever happens** —를 읽고 거기에 붙들린다.

그리고 **may require**를 만났을 때,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잊는다.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 if it ever happens —]
 S _____ | 삽입 |
 may require years of such ...
 V O

대시 두 개 사이를 통째로 들어내면 S와 V가 바로 붙는다.

To produce ~가 주어라는 건 CH05에서 배웠다 — **coma 없이 바로 동사가 오면 주어**. 다만 그 "바로"가 **삽입 때문에 벌어져** 있었을 뿐이다.